

#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가족사진: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뒤로하고

안녕하세요, 로고스호프에서 신선교사 가족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고스호프는 지난 12월 14일까지 키프로스에서의 20일 간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터키령인 키프로스 북쪽에 전도여행팀을 보낸 것을 포함해 94개의 팀을 섬 곳곳에 보내어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선상 컨퍼런스들과 찬양집회, 청소년 캠프, 서점의 손님들 등 모두 9,671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로고스호프 학교 아이들이 쿠키 자선 모금을 통해 리마솔 항구내 선원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눴습니다.



키프로스 여성을 위한 아침 식사 기도회



아프리칸 선교사들이 인도한 대림절 주일 예배

그리고 저희는 기도로 준비하던 중동지역 **이슬람지역**의 첫 나라인 레바논에 12월 15일 도착하였습니다. 레바논은 성경 속에도 등장하는 지역으로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레바논은 12년 전 신사랑 선교사가 로고스호프를 타고 방문했던 때와 또 도은혜 선교사가 옆 나라 요르단에서 사역 할 당시 방문 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과 2년전 베이루트 항구에 있었던 폭발사고 **8천여명 부상자, 30만명의 이재민, 피해액 약 17조 7천억원** 거기다 최근엔 경제 위기와 기근 속에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가 확산 되었고 **5천여명 감염** 현재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나라 전반의 경제와 정치가 많이 불안정 했습니다.



도심에는 아직도 항구 폭발의 흔적을 볼 수 있었고, 경제의 불안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현재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화폐가치 폭락 400%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베이루트 항만청의 예고 없던 임의의 결정으로 항구 밖 출입을 3일 동안 총원 330여명 중 100여명만으로 제한하고 3일 후엔 출입 허가증을 일일이 다시 갱신해야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다시 항구 밖을 나가려면 차례가 돌아오길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 사정이 어렵다 보니 항만은 군부의 통솔 아래 있었고 군인들은 항상 중무장을 하며 임의의 결정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저희 선교선 안에는 항만 군부 관계자들의 거친 항구 운영과 여러 제한된 상황들과 그리고 무슬림 국가에서 느낄 수 있는 이질감과 영적인 눌림 등으로 많은 선내 선교사들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려 불면증, 분노,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항구 폭발 현장: 로고스호프 좌현에서 찍은 사진으로 아직도 폭심지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1L가 104,999 레바논파운드?? 전에는 분명 1500 LBP가 1달러 할 때가 있었습니다

로고스호프를 방문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인파가 배를 방문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고 많은 레바논 사람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일 동안 56,831명의 방문객** 또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94개의 사역 팀이 레바논 곳곳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역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역 기독 단체와 연계하여 생활 형편이 어려운 150 가정에 생 닭을 한 마리씩 전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몇 주 전부터 선상 예배 시간에 목적 헌금을 통해 닭을 살 재정을 마련하였고 전달을 위해 선교사들이 지역교회 교인들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하였습니다. 이 때 저희 가족도 아이들을 데리고 6 가정을 돌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었습니다. 병환으로 누워 있는 할머니,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 시리아 난민, 아르메니아 이주민 등 집집마다 가정 심방을 하며 이들의 사정을 듣고 손을 잡아 줄수 있어서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교회의 성도님들 덕분이었는데, 이분들의 귀한 사랑과 열정이 느낄수 있어 레바논 땅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분들이 믿음안에 굳건히 서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했던 것은 저희 사역을 통해 1명의 무슬림이 성경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현지에 계신 사역자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도은혜 선교사가 중동지역에서 사역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역자 분들의 간증이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나마 왔다 가는 봉사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현지 교인분들과 함께 마지막 생 닭을 전달하고



레바논 C.T.I 기독교 학교 채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고스호프를 방문한 레바논 현지 가족과 함께

배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언제나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또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성장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지난 2022년 저희가 선교를 시작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후원자 분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 항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기도해주세요

1. 레바논의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상황이 안정 될 수 있도록
2. 계속해서 레바논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3. 신사랑 & 도은혜, 주안, 이안 선교사 가정이 은혜 안에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이집트. 포트사이드** 1월 4일 ~ 1월 23일

**요르단. 아카바** 1월 25일 ~ 2월 16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톡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